

제 목 : 2024년 2/4분기 전남 서남부지역 경제동향

□ 한국은행 목포본부(본부장 김태정)는 2024년 2/4분기중 전남 서남부지역* 소재 기업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경제동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 목포시,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전남 서남권 경기는 제조업이 조선업을 중심으로 업황 개선을 이어갔고 서비스업도 물가상승세가 완화되는 가운데 지역 방문 관광객 증가 등으로 업황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

○ 소비는 제조업 업황개선과 물가상승률 둔화 등에 힘입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 4~5월중 전남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기대비 3.1% 상승하며 물가오름세가 둔화되는 흐름을 이어갔다.

□ 향후 지역 경기는 제조업 업황 개선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비스업 업황도 완만한 개선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 다만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 등은 소비의 회복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해 서비스업 업황 개선을 더디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 한편, 최근 전남지역의 재생에너지발전은 설비 및 발전량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책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자세한 내용은 '7p. (참고) 전남지역 재생에너지발전 현황 및 당면 과제'를 참조).

* 전력계통 부담 발생, 설비 난립, 발전 비용 증가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붙임) 2024년 2/4분기 전남 서남부지역 경제동향

문의처: 한국은행 목포본부 기획조사팀 과장 안중섭, 조사역 김민수

Tel: (061)241-1122 Fax: (061)242-1189 E-mail: mokpo@bok.or.kr

한국은행 목포본부의 보도자료는 홈페이지(<http://www.bok.or.kr/mokpo>)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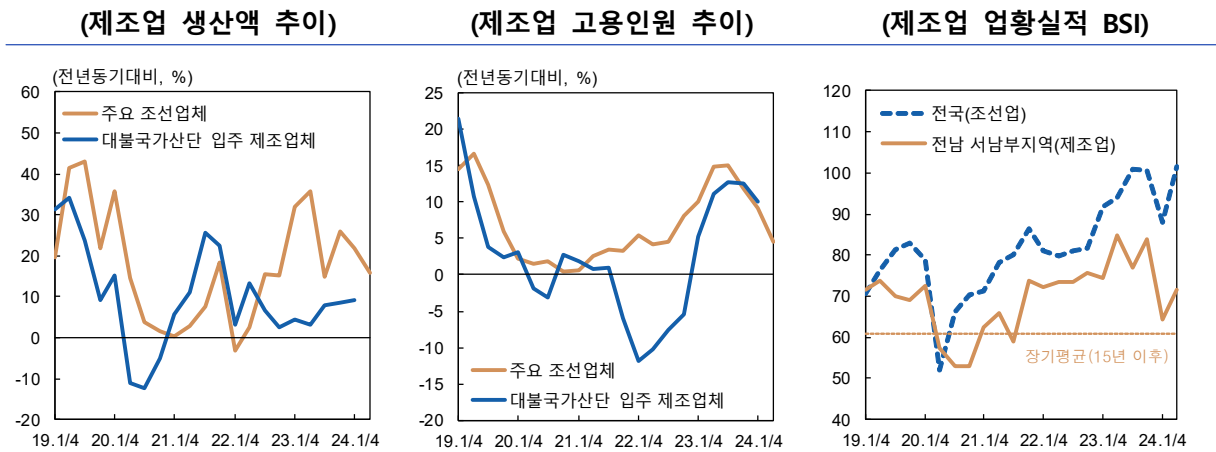


2024년 2/4분기 전남 서남부지역 경제동향¹⁾

1. 생 산

1. 제조업은 조선업을 중심으로 업황개선세가 지속되었다. 2024년 4~5월중 전남 서남부지역 소재 주요 조선업체 생산액(경상)은 전년동기대비 16.0% 증가하였다. 2022년 이후 고선가로 수주한 친환경 선박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높은 수준의 생산이 계속되고 있다.²⁾ 생산 증가와 함께 고용규모도 증가세를 지속해 4~5월중 전남 서남부지역 소재 주요 조선업체의 고용인원은 전년동기대비 4.5% 늘어났다. 다만 고용인원 증가율은 낮아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주요 조선업체가 양적측면에서 생산에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한 것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조선업 호조와 함께 대불국가산업단지 입주 제조업체의 생산과 고용인원도 증가하고 있다.³⁾ 한편, 제조업 업황실적 BSI(심리지수)는 4~5월중 지난 1/4분기 대비 상승하였으며⁴⁾ 지난해에 비해서는 낮지만 장기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림 1. 전남 서남부지역 제조업 생산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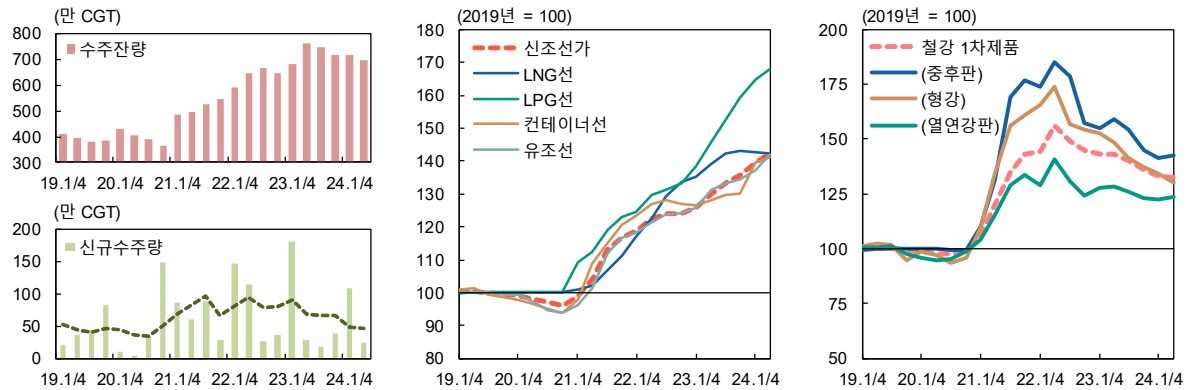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 서남부지역 소재 주요 조선업체

2. 앞으로 조선업은 업황 개선세가 지속되고 고선가 지속, 철강제품 등 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수익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지역경제 모니터링 결과 주요 조선업체들이 향후 3년 동안 생산물량을 확보한 상황이며, 신조선가도 상승세를 이어 나가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고부가가치 선박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앞으로 매

1) 본 자료에서는 별도의 설명이 없는 경우 2024년 5월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 경제동향을 작성하였다.
 2) 선박은 수주 후 설계, 건조, 인도까지 대체로 2년의 시차가 존재해 올해는 2022년 수주한 선박의 생산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3) 대불국가산업단지 입주 제조업체의 생산과 고용은 전남 서남부지역 소재 주요 조선업체와 대체로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다.
 4) 전국적으로도 조선업 호황을 반영해 조선업 업황실적 BSI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출규모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글로벌 선박 발주가 감소하면서 주요 조선업체의 수주 증가세는 둔화되겠지만, 높은 협상력을 바탕으로 고부가 가치 선박을 중심으로 선별 수주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철강 등 선박 건조에 필요한 자재 가격 또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비용 측면에서 수익성이 개선 흐름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⁵⁾ 다만, 외국인 근로자 채용으로 양적 측면에서 충분한 노동력을 확보하였지만 이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소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인건비 상승, 기술력 부족, 해외업체와의 가격경쟁 심화 등으로 업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⁶⁾

그림 2. 전남 서남부지역 소재 주요 조선업체의 향후 업황 관련 지표
(수주잔량 및 신규수주량¹⁾ (신조선가 추이) (조선업 관련 생산자물가)



주: 1) 점선은 4분기 이동평균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Clarksons Research

3. 서비스업 생산은 물가상승률이 다소 완화되고, 관광객이 늘어난 것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4~5월중 전남 서남부지역 소재 서비스업 가맹점 카드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8% 증가하였다. 여기에는 지역을 방문한 여행객이 늘어난 것에 힘입어 음식·숙박업, 도소매업의 매출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기간 이어진 고물가·고금리의 여파로 가계의 구매력이 약화되면서 소비심리 회복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이자부담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모습이다. 이에 영향받아 비제조업 업황실적 BSI는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하였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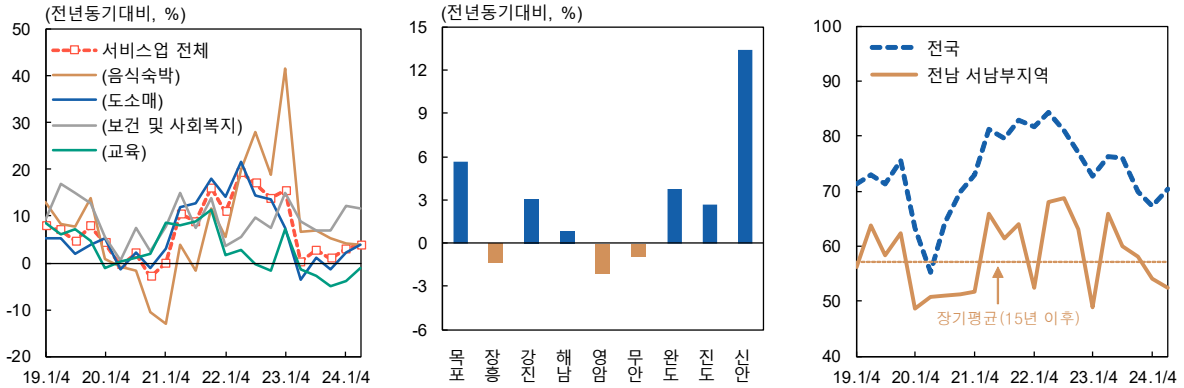
5) 주요 조선업체의 경우 선물환 계약을 통해 환율 변동의 위험에 대비하고 있어 최근의 원/달러 환율 상승이 경영여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6) 대불국가산업단지 입주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중소 조선업체의 경우 기술력 부족으로 중국 등 해외업체와 가격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며, 인건비 상승으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7) 2024년 2/4분기중 전국소년체육대회 등의 행사가 목포시에서 개최되면서 전남 서남부지역을 방문한 외부 관광객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8) 한편, 비제조업 업황실적 BSI는 서비스업 이외에도 건설업 업황이 부진한 것에도 일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 전남 서남부지역 서비스업 생산동향

(서비스업 카드결제액¹⁾)

(지역 방문객수²⁾)

(비제조업 업황실적 BSI)



주: 1) 전남 서남부지역 소재 서비스업 가맹점에서 신한, 하나, NH농협카드의 신용·체크카드 결제된 금액 기준
 2) 2024년 4~5월중 외부방문객수 기준(이동통신 데이터를 이용해 추정)

자료: 한국은행, 신한카드, 하나카드, NH농협카드,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4. 앞으로 서비스업 업황은 물가상승률이 완만한 둔화 흐름을 이어나가면서 개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가계의 소득여건이 점차 개선되면서 민간 소비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 등은 소비회복에 하방리스크로 작용해 서비스업 업황 개선을 더디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해외여행 확대에 따른 지역 관광객 감소, 온라인 소비 증가에 따른 오프라인 채널 위축, 자영업자의 채무부담⁹⁾ 등도 향후 서비스업 업황 개선을 제약할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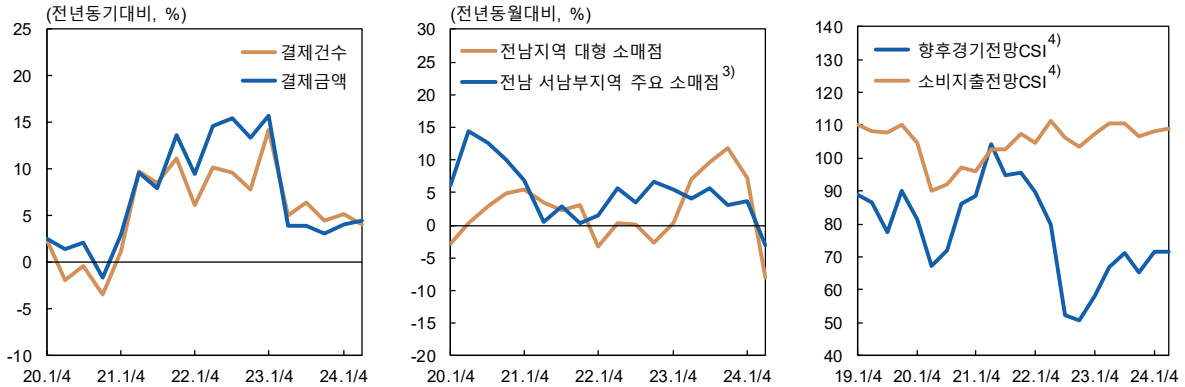
2. 수요

5. 민간소비는 제조업 업황회복, 물가상승률의 둔화흐름 등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4~5월중 전남 서남부지역 개인카드 사용금액은 전년동기대비 4.4% 증가하였다. 물가상승률을 차감한 실질 증가율은 1.3%(4~5월 전남지역 CPI상승률 3.1% 적용)로 나타났다. 한편, 4월중 주요 소매점 매출액(경상)은 전년동월대비 3.0% 감소하였다.¹⁰⁾ 향후 민간소비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흐름을 이어나가면서 가계의 소득여건, 소비심리가 개선됨에 따라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원리금 상환부담 등은 소비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9) 지역경제동향 모니터링 결과 소상공인들의 채무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 대출에 어려움을 겪어 폐업을 고려하는 업체가 지난 1/4분기 대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0) 2024년 4월중 전남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경상, 불변)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8.0%, 12.3% 감소하였다. 지역경제 모니터링 결과 대형소매점의 고객 수는 늘어나고 있으나, 가성비 상품 판매비중 증가 등 소비패턴 변화로 객단가는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 전남 서남부지역 소비동향 및 소비지출 관련 심리지표
(개인카드 이용현황¹⁾) (주요 소매점 매출액²⁾ (전남지역 소비자동향지수)



주: 1) 전남 서남부지역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개인이 신한, 하나, NH농협카드의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한 기준
2) 2024년 2/4분기는 4월 데이터 기준
3) 대형마트 이외에도 슈퍼마켓 등 소규모 소매점을 포함
4) 현재와 비교한 6개월 후 전망으로 기간중 평균값을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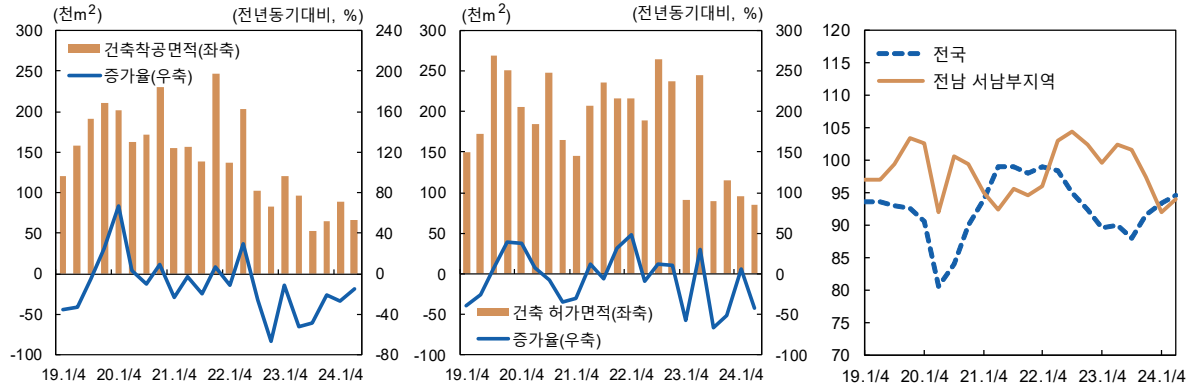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신한카드, 하나카드, NH농협카드, 전남 서남부지역 소재 주요 소매점

6. 건설투자는 지난 1/4분기에 이어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2024년 4월중 건축 착공 면적과 허가면적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15.3%, 42.1% 감소하였다. 인건비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숙련공의 이탈과 은퇴 등으로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가 늘어나면서 공사 진행 속도도 다소 정체될 것으로 판단된다.¹¹⁾ 아울러 고금리 등에 따른 투자심리 부진이 계속되고 있으며 중소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채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향후 건설투자는 신규착공 위축, 부동산 PF 관련 불확실성 등으로 상당 기간 부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7. 설비투자는 조선업을 중심으로 제조업체의 투자가 증가하면서 전분기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조업은 주요 조선업체를 중심으로 안전·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가 증가하였다. 제조업의 설비투자실적 BSI도 4~5월중 지난 1/4분기 대비 소폭 증가한 모습이다. 다만 중소 제조업체의 경우 향후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설비투자가 다소 저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서비스업은 전반적으로 업황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설비투자가 부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앞으로 전남 서남부지역 설비투자는 대형 조선업체를 중심으로 노후설비 교체, 시설확충 등을 위한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금조달 애로,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조선업 이외에 여타 부문에서는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11) 지역경제 모니터링 결과, 지역 내 건설업체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언어장벽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애로 등으로 생산성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5. 전남 서남부지역 투자활동(건설 및 설비) 현황
(건축착공 면적¹⁾²⁾ (건축허가 면적¹⁾²⁾ (제조업 설비투자실적 BSI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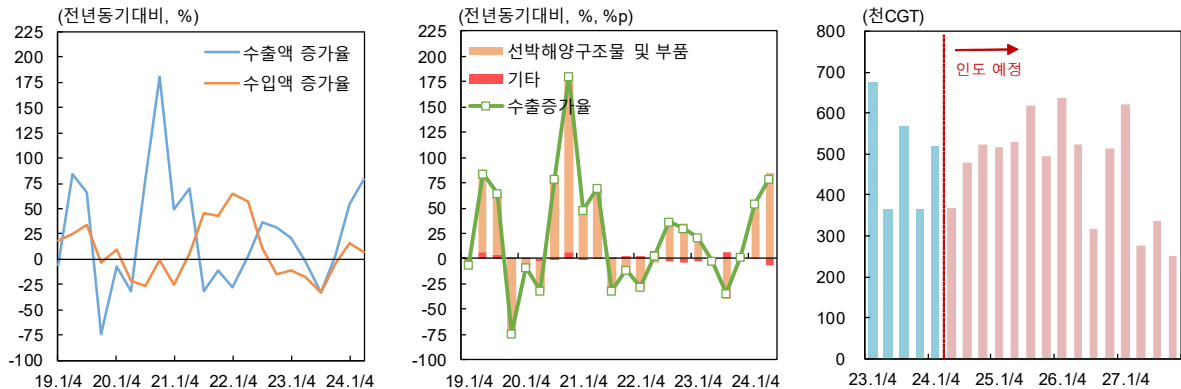


주: 1) 기간중 평균 수치 기준
2) 2024년 2/4분기는 4월 데이터 기준
자료: 한국은행, 국토교통부

3. 수출입

8. 수출액은 선박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며, 수입액은 전년동기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4~5월중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78.6%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6.4% 늘어났다. 이와 같이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은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선박 수출이 증가한 데 기인한다. 향후 주요 조선업체의 선박인도 물량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수출액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주요 조선업체의 선박 생산 및 수출 계획에 따라 일시적으로는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림 6. 전남 서남부지역 수출입 현황
(수출입 추이) (수출액에 대한 품목별 기여도) (주요 조선업체 선박인도 물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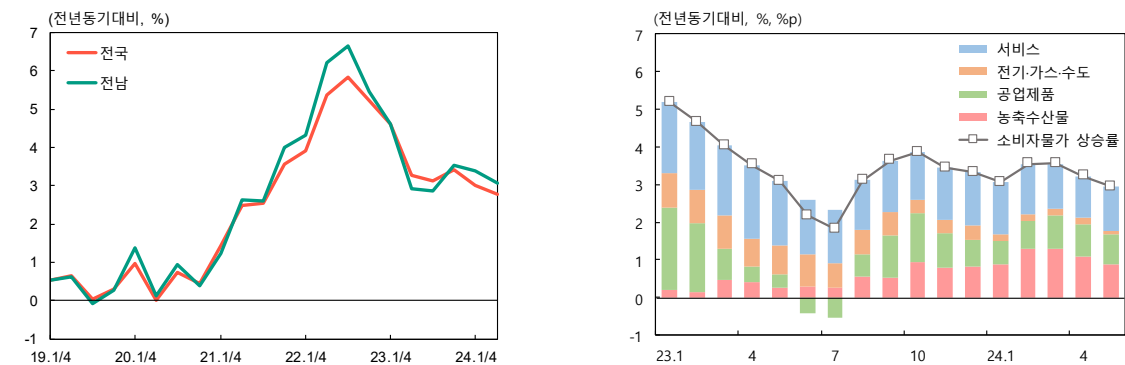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Clarksons Research

4. 물가 및 부동산 가격

9. 2024년 4~5월 전남지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동기대비 3.1% 상승하며 지난 1/4분기(3.4%)에 비해 오름세가 둔화되었다. 월별로 살펴보면 4월에는 전년동월대비 3.2% 올랐고, 5월에는 2.9% 상승하며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으로 2%대에 진입하였다. 여기에는 지난 1/4분기중 크게 올랐던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률이 낮아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 향후 전남지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전국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완만한 둔화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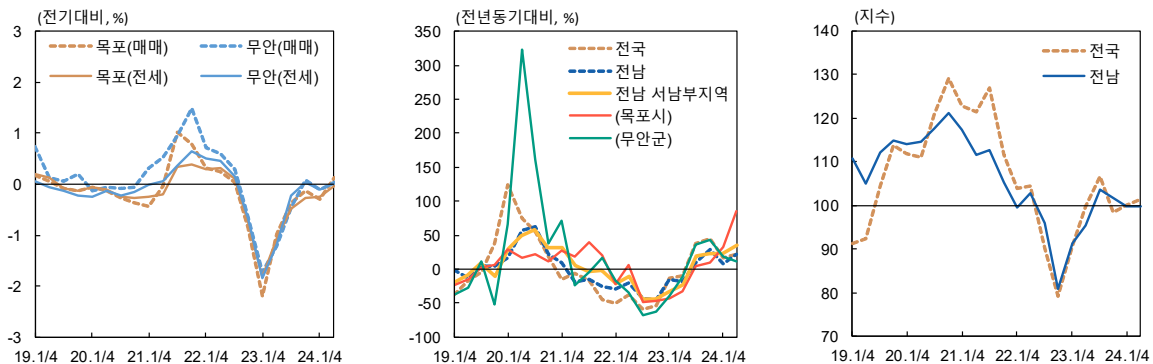
그림 7. 전남지역 소비자물가 동향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추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에 대한 품목별 기여도)



자료: 통계청, 자체 계산

10. 목포시, 무안군의 주택 매매가격은 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며, 전세가격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4월중 전남 서남부지역 주택매매 거래량은 증가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전남지역 부동산시장(주택, 토지) 소비심리지수는 보합 국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부동산시장은 금리 하락 기대에 따른 심리회복 등 상방리스크와 함께 부동산 PF 리스크, 미분양 물량 지속 등 하방 리스크가 혼재하면서 높은 불확실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8. 전남 서남부지역 주택시장 동향
(주택가격 추이) (주택매매 거래량 추이¹⁾)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²⁾)



주: 1) 2024년 2/4분기는 4월 기준 2) 기간중 평균 수치를 사용
자료: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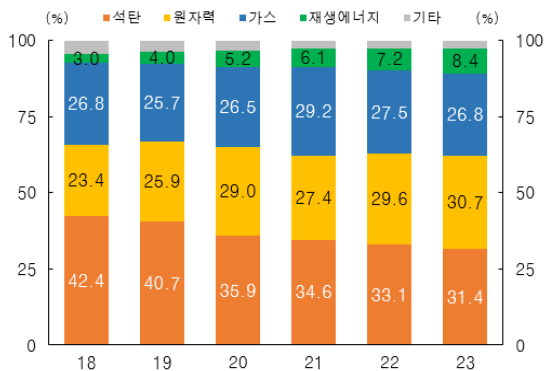
전남지역 재생에너지발전 현황 및 당면 과제

본 자료는 한국은행 목포본부 김상욱 과장이 작성하여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2024.6)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작성자 개인 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본 자료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 작성자 이름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평균기온 상승 및 기후변화가 점점 심각해지고, 국가간 분쟁 등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한 화석연료 가격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점차 커짐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¹⁾로 전환하고자 하는 흐름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현재 22%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42.5%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고, 주요 글로벌 기업들도 RE100²⁾ 등 재생에너지 전환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2017)」 등을 발표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지속해서 상승하였다. 그 결과 2018년 3.0%였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3년 기준 8.4%까지 상승하였다.

발전원별 발전량 비중 추이



자료: 한국전력공사

-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르면 재생에너지의 범위에는 태양, 풍력, 수력, 해양, 지열, 바이오, 폐기물(비재생 폐기물 제외)이 포함된다. 신에너지에는 수소 에너지, 연료전지 등이 있다.
- 2) Renewable Electricity 100%의 약자로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국제캠페인이며 2014년 비영리기구인 Climate Group의 주도로 시작되었다. 미국 및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수입품에 대한 탄소배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도 RE100을 충족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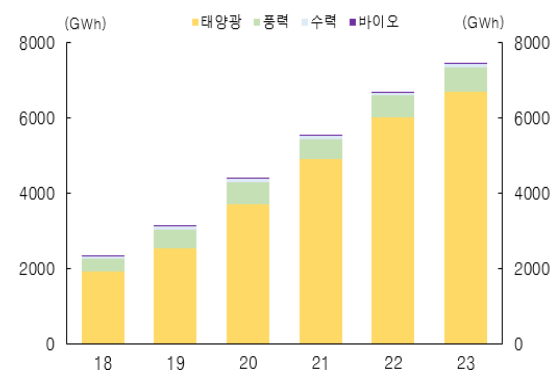
지역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및 발전량 현황¹⁾

지역 ²⁾	설비용량		발전량	
	MW	비중	GWh	비중
전국	29,727.0	(100.0)	46,573.6	(100.0)
전남	5,988.4	(20.1)	7,442.9	(16.0)
전북	4,891.0	(16.5)	9,189.9	(19.7)
경북	3,864.2	(13.0)	5,402.4	(11.6)
충남	3,559.9	(12.0)	6,526.2	(14.0)
강원	3,155.7	(10.6)	5,673.8	(11.7)

주: 1) 2023년 기준
2) 설비용량 상위 5개 지역
자료: 한국전력공사, 전남도청

전라남도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에 적합한 자연환경³⁾을 바탕으로 발전설비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2023년 전남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전국 대비 20.1%로 가장 높고, 발전량 기준으로는 전국 대비 16.0%로 전북(19.7%)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전남지역 재생에너지 발전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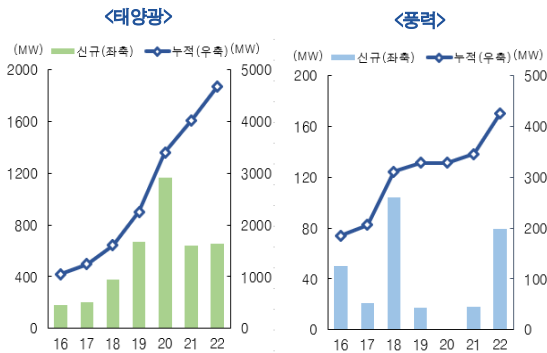
자료: 한국전력공사, 전남도청

- 3) 2018년 전국의 재생에너지 자원 잠재량을 조사(산업통상자원부)한 결과 전남지역의 자원 잠재량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태양광 1위, 해상풍력 1위, 육상풍력 3위)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재생에너지 발전량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이후 연평균 약 26%씩 증가하는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냈다. 전남지역 전체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3.9%에서 11.1%까지 상승했다.

전남지역 재생에너지원 중에서는 태양광 발전 비중이 2023년 기준 90.1%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풍력발전 비중이 8.7%로 태양광과 함께 전남지역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 대부분을 생산하였다. 상대적으로 수력(1.1%) 및 바이오(0.1%) 발전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태양광 및 풍력발전 설비용량¹⁾ 보급 추이



주: 1) 사업용 발전설비만 포함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 및 풍력 위주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가파른 증가세는 앞서 언급한 발전설비 확대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태양광 발전의 경우 2018년 이후 발전설비 확대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2022년 말 기준 해당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이전과 비교하여 발전설비 용량이 약 4배 이상 증가하였다. 태양광과 달리 입지 조건이 까다롭고 설비 설치기간이 오래 걸리는 풍력발전은 발전설비 용량의 증가 폭이 크지 않았으나 2022년 화순, 무안에 풍력발전기 설치가 완료되면서 설비용량이 증가하였다. 또한 신안 등에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조성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처럼 재생에너지 발전이 확대되면서 전력계통 부담 발생, 설비 난립, 발전 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먼저 재생에너지 발전은 발전량을 미리 조절하기 어려운 만큼 전력이 과잉생산되면 전력계통에 불안정을 일으켜 대규모 정전까지 이어질 수 있다. 현재는 발전소에 대한 출력제한 조치를 통해 이런 사태를 방지하고 있지만, 전남지역은 이미 전력 발전량이 소비량의 1.9배에 달하고 있어 앞으로 이러한 여유 전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⁴⁾이 필요하다.

또한 발전설비 난립으로 환경오염 및 지역 주민과의 갈등 문제도 발생하였다. 이에 전남 신안군의 '햇빛연금'⁵⁾과 같이 지역민과 재생에너지 발전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로 활용해왔던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⁶⁾를 소규모 사업자의 난립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높은 발전원가로 인한 비용 상승 우려도 있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 재생에너지의 발전원가가 화석연료 대비 저렴한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국내의 경우 높은 토지 수용비용, 소규모 설비 위주로 규모의 경제 달성이 어려운 점 등으로 인해 재생에너지의 발전원가가 아직 다른 국가 대비 높은 편이다.

- 4) 잉여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전력 충전 시스템(ESS) 확충, 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 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수소 생산,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같은 지역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분산에너지 시스템 활성화 등이 있다.
- 5) 신안군은 2018년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 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들이 발전소 개발, 투자에 직접 참여(지분의 30% 이상 또는 사업비의 4% 이상)하도록 하고 개발 이익을 배당 형태로 주민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 6)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는 500MW 이상 대규모 발전회사에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미달하는 회사는 재생공급인증서(REC)를 재생에너지 발전사로부터 구입하여 충당할 수 있는데 최근 REC 가격이 상승하며 태양광 설비 초과 공급, 발전회사의 발전 비용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 7) 에너지원간 발전원가 비교를 위해서는 발전설비 건설부터 폐기까지 전 수명주기에 걸쳐 비용을 집계한 균등화발전비용(Levelized Cost of Energy)을 보통 활용하는데, 재생에너지의 경우 기술 발전 등으로 균등화 발전비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